

연중 제33주일(평신도의 날)

제 1 독서 : 다니 12, 1-3

제 2 독서 : 히브 10, 11-14. 18

복 음 : 마르 13, 24-32

숲 정 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마르13, 32).

강론

● 평신도의 날

“보람의 창조”

김치덕(바오로) / 평협 회장

만상 흥업의 단풍의 계절을 뒤로 하고 이제 엄동설한의 모진 추위가 머지 않아 다가올 것이다.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을 한주간 앞에 둔 오늘, 이 땅의 교회 모든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24번째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호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매일 미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약속을 하면서도 어긴 일은 없었는지 또한 짧게는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쯤 자신의 양심과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볼 때라고 본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며 만사에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진지한 성찰은 깊은 각성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반성이 없는 생활은 살 가치가 없다고도 말한다. 먼저 금년 한해를 나는 평신도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또 무엇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보람있는 한 해였던가를 도리켜 생각해본다. 조그만 이익이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지는 않았는가. 나의 분수를 망각하고 탐욕과 물지각의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가.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무계획, 무성실의 허망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다음으로 금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생각해본다. 성취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결실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1년이면 365일이요 시간으로 약 8천 시간이다. 이 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취의 업적과 성과를 쌓지 못했다면 태만과 무사안일의 삶을 보냈다고 하겠다.

끝으로 나는 평신도로서 얼마나 보람있는 한해를 살았는가를 생각해본다. 보람은 행복의 핵심이요 가치의 표준이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고 보람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허송 세월, 권태와 방관의 세월 속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우리는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보람의 창조 이것이 삶의 의미인 것이다. 보람은 열중 속에 있고 노력 속에 있고 성취 속에 있다.

소리

“꼬리가 붙은 약속”

쌀이 문제다.

한 세대쯤 전까지만 해도 모자라서 걱정이던 쌀이 이제는 남아서 걱정이다. 그러기에 풍년도 반겨지지 않는 세상이다.

쌀이 귀했던 시절 분식이 권장되기도 했거니와 식생활 양식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추곡 수매가 한창이지만 아직 값도 매겨지지 않은 상태다.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해 놓고 있는 인상물로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양곡 적자다 보판비 부담이 크다 하여 수매가 인상도 전량 수매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어쩌다 귀하기만 했던 쌀이 이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이런 판국에 쌀을 지원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미국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드세게 가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에 온 미국의 대표는 “한국의 쌀시장은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앞서 어느 시골지역을 찾아간 총리는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겠다”면서 여기에 ‘원칙적으로’라는 걸찍이근한 단서(但書)를 달았다.

과연 정부가 이같이 어정쩡한 약속을 지켜줄 것인지, ‘기름기가 번지르르하다’는 캘리포니아 쌀이 몇 곱이나 싼 값으로 시판될 경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농촌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4월 최고기 시장이 개방된 일본에서는 최고기 수입량이 개방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니 이야말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까. **진**

숲정이 산책



평신도의 책임과 의무

“천당에 안가겠느냐!”

고산 성당 애령회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남들이 꺼리는 일에 기쁘게 뛰어들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사랑과 인정의 전령사들이 있어 소개해본다.

퇴재(升時)에서 비롯된 유서깊은 신앙을 간직한 채 오늘도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다소곳 정과 사랑으로 뭉친 곳이 바로 고산 성당이다. 이곳에 애령활동이 시작된 것은 1958년, 지금부터 34년 전 ‘성우회’라는 명칭으로 교우 초상집을 다니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975년 본당에 애령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 그간 700여회에 걸친 활동으로 세상과 이별하는 이들의 벗이 되어 왔다.

애령회가 발족되면서 줄곧 회장직을 맡아온 양영석(베르나르도·67세) 회장은 고산 성당 애령활동의 산 증인으로 언제라도 부음을 접하면 만사 제치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임종에 가까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애령사업의 거목이다. 애령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애령회의 어느 한 분은 교우 초상일에 전념하느라 장마통에 눈 다섯마지기 가 다 떠내려가는 데도 상가일이 끝난 후에야 겨우 자기 집 일에 신경쓸 정도로 애령회 활동에 열의가 있다. 세상이 온통 이기주의와 자기 본위의 사고로 썩어가는 마당에 이들의 참봉사의 삶은 예수 믿는 이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는 참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

500여 세대 전신자가 애령회원이기도 하며 초상이 나면 사목 회장을 비롯한 사목회 임원들이 염, 입관, 연도, 장지 봉사 등 술선수법해서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목회장 자신도 애령회 봉사요원이라고 장경암(레오) 회장은 자신있게 말한다. 한때는 애령회가 신자들에게 “대세를 너무 남발하는게 아니냐”고 편견을 듣기도 했었는데 후에 그 가족들이 영세, 입교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사업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지 느낀 신자들이 자진해서 애령회를 돕고 나선 일도 있다고 한다. 특히 성당 내 50대 이후의 신자들은 연도책이 필요없을 정도로 연도문을 줄줄 원다고 하니 상가 봉사에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넉넉잡은 애령분과비에 조금씩 쪼개어 1년 행사로 애령교육 1회, 연도대회 1회, 단합대회 1회 등 조출한 자체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고산 애령회는 활동회원만도 30여명이 넘는다. 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은 “저렇게 밤낮을 안가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망자가 천당에 안가겠느냐”고 이구동성.



얼마 전 어린 학생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 병원까지 달려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양 회장은 “지금도 늘 몸이 불편한데 초상이 났다는 소식만 접하면 몸이 거뜨하고, 상가집에서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아픈 줄을 모르겠으니 이같은 은총이 어디 있겠느냐”며 “빠를 녹이도록 노력하며 살아도 그 크신 주님은혜 보답키 어렵다”고 겸손되어 말한다.

고산 성당 영세 신자들의 입교 동기 중에 애령활동을 통해 입교 영세하는 이들이 30%가 넘는다는 본당신부의 말씀. 애령활동 후 전교가 되어 함께 성당 활동을 하는 교우들을 볼 때가 가장 흐뭇하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상태를 죽음이라 말한다면 죽음 후의 시신에 대한 봉사만으로는 진정한 애령활동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소개한 이분들의 봉사활동이야말로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줄줄 아는 진정한 애령사업의 선구자들이 아닐까? 형제애로 똘똘 뭉친 고산 성당 애령회, 아직도 상여를 메고 방울소리 울리며 험한 장지를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이 옛부터 전래된 고유의 장례모습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함께 간직한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임을 실감케 한다.

성당이 비좁은 탓도 있지만 다른 성당처럼 장례미사 때 사용할 아담한 운구대 하나를 장만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기도 한 이들의 모습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 쪼들려 더러워진 영육의 때를 말끔히 씻겨 영원 성부의 품에 안겨드리는 사랑의 천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鮮宇觀光

- 해외여행 • 여권 • 비자
- 유학 • 신혼여행
- 항공권 발매
- (구) 성모병원
- ☎ (0652) 87 - 9797
- 이 중 길(오한)

우전옥 횃집(효자동)

활어회 · 각종 회 전문
실비 봉사

김 태 웅(베네딕도)
제일여객 앞골목

☎ 224 - 0588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 - 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 · 하차장 앞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 · 연구과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잡 관 /

“사제가 본 평신도”

“평신도들은 복음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재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재 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으로써,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며, 누룩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는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평신도=병신도’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느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둘째, 평신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소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신앙생활이 다분히 기복적이고 개인 신심주의적이다.

넷째,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

다섯째,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 어쩌면 이는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원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시대는 평신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마태 5, 13).

교 구 소 식

1. 평신도의 날 2차 헌금: 오늘 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2. 추계 사제 총회: 11월19일(화) 오전10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3. 참사회: 11월22일(금) 오후2시 교구청.
4. 축! 견진: 11월23일(토) 오후3시 합열 성당, 11월24일 오전10시 원평 성당.
5. 전주교구 휘꽃라레 모임: 11월24일 오후2시30분-5시 가톨릭센터 1층 강당.
6. 태아생명 보호미사: 11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85-5098.
7. 혼인강좌: 11월24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비-5,000원, 문의 85-5098.
8. 전화번호 변경: 순창 성당 사제관 (0674)53-1004, FAX (0674)53-0414.
9. 감사드립니다: 치매자산 성지개발 헌금-익명으로 5백만원.
10. 이순이(투갈다) 옥중서간 카세트 테이프 발간: 1세트 2개 6,000원

구입처-전주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축! 명명: 23일(성클레멘스) 윤양호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사람의 씨튼수녀회(피정): 11월24일 9시30분-17시 본원 (062)571-3004.
 살레시오수도회: 11월24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2층 평화신문사(062)55-0332.
 한국외방선교회: 11월24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농산물 값이 보장되어야 농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오염없고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비싸다 생각 말고 이웃 농민을 생각하는 도량을 가집시다.

가정 농·공업 용수, 목욕탕 용수, 지질조사, 수중펌프 설치
 함미링 전문(고성능 작동기보유)
대한지하수개발공사
 ☎ (0652)222-7750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593-2
 김춘산·최규숙(테레사)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 봉 석(루가)
 김 인 숙(테레사)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28세 미만의 미혼 여성.
 삼랑진 본원: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10시-오후4시30분
 문의: (0527)52-4241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장소: 제주시 '형제의 집 피정센터'
 (한국순교복자수도회) *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통 남문로
 ☎ 84-729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옥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오늘은 평신도의날. 2차헌금 있습니다.
2. 성물판매소 이동: 차고위치로. 성물판매소는 휴게실로 활용
3. 사제총회 관계로 19일 전10시30분 미사없고 새벽미사 있음
4. 가정방문: 20일-중노 17기반 21일-중노 17기반
22일-중노 17기반
5. 부녀회 월례회: 20일 어머니미사 후
6. 구역 반별로 연도대회: 21일~23일 저녁미사 후
7. 축! 결혼: 24일 12시 신랑-정현수(마태오) 신부-이순선
8. 날마다 그날의 성서귀절을 한문더 읽고 묵상합니다.
9. 금주침소: 중노1가11, 12반 차주침소: 중노2가1, 2반
☐ 지난주 봉헌금: 911,700원 ☐ 교무금: 1,37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연도대회: 19일(화) 저녁미사 후 각Pr별 대회
※ 레지오 단원은 모두 참석바랍니다.
2. 성모상 건립 헌금: 배 발바라(2백만원) 오회용(5십만원)
3. 모임: ①성우회-공식미사 후 ②부녀회-24일 오전10시
③빈첸시오회-23일 오전10:30분
④울드레아-24일 공식미사 후
⑤회장단회-24일 저녁미사 후
※ 성당침소(23일): 의덕의거용Pr, 셋별Pr
금주전례: 엄은희 독서-이갑규씨부부 봉헌-송승덕씨가족
차주전례: 정승훈 독서-이홍민씨부부 봉헌-강희술씨가족
☐ 지난주 봉헌금: 659,050원 ☐ 교무금: 1,397,8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 오늘은 평신도의날: 미사중2차헌금
1. 성령세미나: 18일(월)~23일(토)까지 매일저녁7시, 회비천원, 전신자의무 2. 견진교리: 26일부터
3. 성기회, 청년회: 공식미사 후
4. 성서읽기: 디도서, 필레몬서 전체
5. 금주침소: 평화의모후Pr
6.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금주전례: 해설-박경래 독서①김봉길 ②김순이
봉헌-노기식, 김성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남현준 ②강경자
봉헌-남현준, 이승복씨 부부
8. 축 혼배: 신랑-김덕수(요한) 신부-이승자(루시아)
24일 오후1시, 중앙성당
☐ 지난주 봉헌금: 259,290원 ☐ 교무금: 30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연중제33주일(평신도의날) 2차헌금있음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11월21일(목)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제: 11월20일(수)
②유아세례자가있는 부모님들은 사무실에신청바랍니다.
③성당내 모든 물건은 전신자우리의것입니다. 내물처럼 사랑하고소중히여기며자꾸주고, 봉사하는마음으로갖게사용합니다.
④미사시간을지킵시다-적어도미사시간10분전에입장하시어경배하며미사가완전후플란뒤에퇴장합니다.
⑤11월은연령을위한달이오니조상님들과फल쌍한영혼을위해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04,350원 ☐ 교무금: 55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견진성사를 축하드립니다
1. 견진성사: 오늘 공식미사 중(미사 후 한마당잔치)
2. 성 바오로 서원 서적전시 및 이동판매: 오늘 성당팔
3. 평신도 주일: 2차헌금
4. 침소봉사: 5구역2반(1,5,8등)
☐ 지난주 봉헌금: 648,440원 ☐ 교무금: 61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명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2차헌금 있음
※ 전동신자전화번호부'가가정 1권씩 배부중
1. 성전보수헌금바람. 2. 전동100년'화보집 판매: 권당10,000원
3. 금주모임: ①바비의 성모Cu(오후2시) ②청년연합회 대침소(오후4시)월례회의(저녁미사 후 4. 성화회: 18일(월)저녁6시 5. 계층별 교육: 19일(화)~21일(목) 오전10시(성가전회, 성모회 30~50대 기혼여성) 성령기도회: 매주금요일 저녁미사 후(2층)
7. 차주모임: ①성마리아Cu(오후2시) ②교무금 납부주일
8.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①원서교부: 12월2일(월) ②접수: 12월7일(토)9시(선착순) ③대상: 만6세35명(86년생, 만4세30명(88년생)) ※ 금주보수비헌금액: 130,000원 ※ 현재도금총액:
☐ 지난주 봉헌금: 1,614,680원 251,651,801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원규

-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강론-장상근 부회장
1. 92년도 예산 심의회: 18일 후7시, 회장단, 재정부장 참석
2. 연도대회: 25일 후7시(새연도 시편 찬미기도)전구역 참석
3. 환자봉사체: 21일 전9시30분 환자콜로신 가정은 신청바람
4. 축! M.E 36차탄생: 이만기부부, 조선부부, 정이나시어 수녀
5. 반미사: 19일-8-1, 2(전10시30분), 21일 7-1(후8시) 22일 11-3 전10시30분, 8-3 후8시.
6. 빈첸시오회: 23일 전10시30분 새 신자 가입 환영 합니다.
7. 91년 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봉헌후에 신청바랍니다.
8. 회의: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울드레아-다음주일 후12시
☐ 지난주 봉헌금: 664,980원 ☐ 교무금: 71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있기를 기원합니다.
1. 자모회: 오늘미사 후
2. 감사미사: 20일(수)오전-화산1, 오후-삼정1,3
21일(목)오후-동신 22일(금)오후-삼정2
3. 청년회: 다음주 미사 후
4. 예비자 교리반: 매주 일요일 오전9시
5. 본당에 이사로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사무실문의)
6. 침소봉사: 점촌한신자의 모후Pr
7.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 봉헌: 이금숙· 박경주
차주전례: 정결 독서· 봉헌: 송민숙· 이광석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중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죽은이름위해 기도합니다.
1. 감사! 해미성지순례 봉사해주신 교우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12대버스) 2. 위험합동미사: 매주 수요일오후7시미사, 3. 레지오기부연수회: 24일후2시~5시30분 4. 모임안내: ①모니카회, 데레사회-(수)오전10:30분 ②포미시울-금주(토)오후3시(교육관) ③푸리아-다음주(수)오전10시(교육관) 5. 예비자교리안내: ①(일)오전10:30분 ②(목)후7:30 ③(금)전10:40 ④중고생(토)후6시 6. 분과별단체별92년도계획서11월말까지제출바랍니다(91년도사업계획서함께) ※ 매일마지막주는 교무금납부주일입니다. ※ 다음주는 본당을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752,790원 ☐ 교무금: 47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반기기도회모임: 22(금)10시미사 후
3. 판공성사일정: 19(화)저녁현대1, 2반 20(수)저녁현대3, 4 21(목)저녁현대5, 6반 22(금)오후2시 두현리 저녁제일반
4.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오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울드레아단합대회: 공식미사 후 모악산. 회비: 5,000원
6. 미납된 교무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모임: 반석회, 요셉회
지난주 신속헌금 봉헌액: 510,000원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최규화 ②이준순
기도①김상권 ②이귀일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우길 ②송영이
기도①송재만 ②이화선
☐ 지난주 봉헌금: 1,058,720원 ☐ 교무금: 1,876,000원